

原電建設 持續的으로 擴大

발전소 건설기술의 자립화를 촉진한다.

에너지 消費節約의 적극 推進

지난해 정부와 기업, 가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편 결과, GNP에 대한 에너지 투입비중이 점차로 감소되어 작년의 총 에너지 절약 실적은 81년비로 보면 8.1%, 전년비로 보면 2.8%, 석유절약 7.2%에서 올해는 총 에너지절약 81년비 11.0%, 전년비로 4.0%, 석유절약 10%로 목표를 잡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그 추진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소비억제, 에너지 사용방법 개선, 자율·개별단위의 단순 절약(제1단계 소비절약)에서 기술혁신과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제고와 저에너지 소비제품의 생산화 대 공정개선을 통한 효과적 절약추진(제2 단계), 소비절약의 의무화 확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집단 관리화를 통해원천적절약(제3 단계)을 유도해 나간다.

구체적 내용으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이용 热효율제고를 위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노후보일러의 시설을 바꾸고, 5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热병합발전, 에너지관리진단을 중소기업에 실시하고, 10,000개 업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 손실요인의 도출과 함께 시정 조치한다.

선진절약기술 및 공정개발 도입에 있어서 대상 기술개발의 적극화와 선진 고급기술도입 및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200개 업체에 대하여 목표원단위를 설정 관리하고, 미달시는 시정 조치한다.

공장의 신·증설시 신고범위를 확대하여 신공정도입을 촉진하고, 공장의 에너지 사용기준을 제정 보급하고 에너지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 가정과 상업부문에 있어서도 열손실 방지를 위한 斷熱化를 촉진하고 热발생기기의 효율을 제고하며, 가전제품의 절전형 개발을 유도하며, 木洞, 여의도 지역에 집단 热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차량개발과 대량화물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처 공동으로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하며, 조직적인 홍보를 대상별로 구체적 절약기술

을 보급해 나간다.

石油代替에너지의 使用拡大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석유의존도 감축을 도모하여 지난해의 56.5%에서, 84년 54.4%, 86년 50.9%, 91년 46.4%로 점차 의존도를 낮추어 나간다. 이를 위해 석유소비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대체에너지의 사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대체를 위하여 2개의 석탄발전소를 연내에 건설함으로써 석유화력의 비중을 지난해 60.1%에서 올해 55.7%로 낮출 계획이고,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등 발전원의 석유대체 확대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산업체의 유연탄 사용을 확대하여 기 대체 완료한 시멘트 산업에 이어 섬유·제지등 열 다소비업종에 중점 보급함으로서 1억9,300만달러(지난해 1억6,500만달러)의 외화를 점감키로 하고, 인천·울산에 석탄전용 부두건설 및 석탄공급기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밖에 태양에너지, 메탄가스, 풍력, 소수력등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文化生活의 増進

에너지의 품질향상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문화생활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低公害油 보급을 확대하고 전압의 단계적 개선 및 정전시간을 감소시키며, 연탄의 탄질을 4,550카로리에서 4,600 카로리로 향상시켜 사용편의도를 증진하고, 석유류 및 석탄의 품질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가스 사업과 LNG사업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편의도 높은 가스의 적정보급 환경을 조성하며,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심지 송배전선로의 지중화를 확대하며, 광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보완하고, 연탄공장의 시외파이선 및 단지화 추진, 공해 방지 시설의 확충등으로 탄광 및 연탄공장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